

이덕일의 '역사의 창'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과 비슷한 조선의 사법기관은 사헌부(司憲府)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은 사헌부는 물론 의금부, 형조, 한성부 등 여러 기관에 수사권을 주었다. 여러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한 부처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바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겼다.

성종 1년(1470년) 7월 부상(富商) 김득부(金得富)가 대신 김정광(金正光)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세조 때의 적개공신 김국공의 동생 김정광에 대한 의금부의 수사는 미진했다. 승정원에서 바꾸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하자 성종은 의금부 수사관을 사헌부에 구속했고, 사헌부가 수사에 나서자 다급해진 의금부는 김정광이 그간 수뢰한 뇌물명목을 모두 작성하며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은 사형 대신 장(杖) 1백 대에 먼 변방의 종으로 삼고, 장안(賊案)에 기록하게 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인 장안에 오르면 본인은 물론 자손들까지 모두 벼슬길이 막혔다. 세조 때의 공신집안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은 지금의 차관급인 종2품에 지나지 않지만 그 위세는 정1품에 뒤지지 않았다. 백관에 대한 탄핵권과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의 사헌부는 내부 위계가 엄격했다. '연려실기

조선의 사헌부와 대한민국 검찰

술' 관직전고(官職典故)는 '지평(持平:정5품)은 뜰에 내려가서 장령(掌令:정4품)을 맞았고, 장령은 집의(集義:종3품)를 또 그와 같이 맞았으며, 집의 이하는 모두 내려가서 대사헌을 맞는 것이 상례(常例)였다'고 전하고 있다. 내부 위계질서는 엄격했지만 업무는 민주적, 수평적으로 처리했다. 사헌부는 다시(茶時)와 재좌(齎坐)라는 회의를 열어서 다례(茶禮)를 행하면서 업무를 협의해 처리했다.

사헌부가 나라사람들의 신망을 산 이유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추상갈았기 때문이다. 수장인 대사헌일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각 탄핵하고 나섰다. 명종 16년(1561년) 4월 사헌부는 '대사헌 송기수(宋繼壽)가 상소를 올릴 때 거론해야 할 장본인이 있는 줄 알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파직을 요청했다. '거론해야 할 장본인'은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 심씨의 외숙 '야량(李樛)'과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尹元衡)'이었다. 명종 때 '야량-윤원형-심통원'은 모두 왕실의 처가 인사들로서 전횡을 자행해 '삼흉(三凶)'으로 지목되었는데, 대사헌 송기수가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을 거명해 탄핵하지 않았으니 파직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의 '연려실기술' 관직전고'는 사헌부 관원이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한다'고

전하는데, 종2품 관청으로서 백관을 떨게 하는 권위는 이런 자기 검열에서 생긴 것이다. 사헌부 정6품 감찰(監察)에 대해서는 '남루한 옷에 좋지 않은 말과 찢어진 안장, 짧은 사모에 헤진 띠를 착용한다'고 전한다.

사법기관의 진정한 권위는 조선의 사헌부처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고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도덕성을 갖추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조선의 사헌부는 정의 실현을 지체하지도 않았고, 한쪽만 심판하는 편향된 수사를 정의라고 호도하지도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일단 끝나면 승자는 선거기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패자가 부정선거라고 반발한 적은 있었지만 승자가 자신 휘하의 검찰을 시켜서 패자는 물론 그 부인까지 겨냥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의무는 사회통합이고, 그 사회통합의 첫걸음은 패자를 포용함으로써 패자를 찍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다.

일부 검사장 탄핵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대거 나서서 반발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장본인은 야당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만약 대선의 승패가 바뀌어도 검찰이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보면 답은 자명하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반헌법적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은 국민이 잡자리에 들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후시 전쟁이 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45년 전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내려졌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모습은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 K컬처를 필두로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선진국가로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상과 신용도를 급락시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한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패악질 등을 꼽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외신들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택한 자충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치적 대립을 정치로 풀지않고 적의 침입을 막아야 할 군 병력을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한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절차 무시, 국회 제약은 위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이후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등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48시간 이내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군에게나 사용하는 처단이라는 용어를 국민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여만이다. 그러나 우리 정체가 살아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최소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국민이 혼란에 빠졌지만 5·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충격은 동시대에 이룩한 선진국가로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상과 신용도를 급락시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야 190명 전원 찬성 해제

비상계엄은 철회됐지만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원 국방·이산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비상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유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다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으니, 계엄이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지만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한 점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외교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가뜰스나 어려운 경제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 지금은 불안정한 국가를, 불안한 국민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히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임성훈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칫솔질 원칙은 '3-3-3법'이다.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세 번 칫솔질을 하라는 의미다. 식사 직후 칫 속의 당단백질과 효소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피막을 형성하고, 이 피막 위에 세균이 군집을 이루어 치태로 발전한다. 식사 후 음식을 씹어기가 치태에 달라붙으면, 세균이 음식물 속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젖산 등을 생성하며, 젖산은 치아 표면의 칼슘과 인을 용해시킨다. 식사 중에는 음식물과 침의 이동에 따른 세척 효과와 희석 작용으로 인해 치아가 부식되기 어렵지만, 식사 후 3분이 경과하면 치아 표면에서 칼슘과 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식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권장하는 이유이다.

청량음료나 주스, 오렌지 등의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음식들은 섭취 과정에서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즉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더 쉽게 마모될 수 있다. 따라서 물로 충분히 입을 헹군 후 30분 정도 기다려 칫 속의 칼슘과 인이 치아 표면에 재침착돼 치아 표면이 강화되도록 한 뒤 칫

솔질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미국치과의사협회나 영국 보건국은 하루 2회, 각 2분씩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며, 실제로 서구에서는 점심 후 칫솔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하루 두 번의 칫솔질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방법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실천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식사 후 3분 내에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치아가 부식되기 시작하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에 매 식사 직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치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져서 제거가 어려워지는데, 하루가 지나면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으며 이들이 지나면 치석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침 칫솔질 이후 형성된 치태는 취침 전 칫솔질로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세균과 산에 취약해지므로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전에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씹어기가 잘 침착되는 부위는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이다.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는 칫솔을 45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에 대고 앞뒤로 1~2mm 거리의 진동을 주며 닦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틀어진 치아나 건강하지 않은 잇몸을 가지고 있어 칫솔질만으로는 닦기 어려운 부위가 생기게 된다. 특히 잇몸뼈가 녹으면서 잇몸이 내려간 경우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부위는 칫솔질만으로는 정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강세정기, 치실, 치간칫솔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세정기는 음식물 찌꺼기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아에 대한 부착력이 약한 치태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식사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점심 시간에 모든 구강 위생용품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강세정기만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구강세정기만으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치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식에는 냄새가 강한 음식이 많은데 입냄새를 줄이려면 혀 뿌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칫솔과 치간칫솔 같은 솔을 이용한 세정은 아침과 저녁에만 해도 치태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단, 잇몸이 내려간 부위에 치간칫솔을 사용할 때에는 치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치약에 포함된 연마제가 치아 뿌리의 민감성을 높이고 과도한 마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많이 쌓인다면 개인의 구강위생 관리법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은 칫솔 외에도 추가적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아 배열과 잇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구강위생 방법을 추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지방도 지구도 살리는 해조류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의 빙하도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다. 해양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올해(1~9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4도나 올랐다. 과학자들은 1.5도를 초과할 경우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이상기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누구도 이 거대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거나 줄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 2050년이 프랑스 파리 기후협약에서 정한 탄소 중립 목표년도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는 활동발생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탄소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후소송이나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10% 정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흡수량을 늘리는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일환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블루카본을 활용해야 한다.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생식물, 해조류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지구촌 탄소 중 57.6%는 육상(그린카본)에서, 42.4%는 해양(블루카본)에서 흡수하고 있다. 흡수 속도는 블루카본이 50배 이상 빠르다. 저장 능력도 훨씬 크다. 저장 기간은 자그마치 수천년 동안이라고 한다. 해양생태계는 바다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바다로 흡수되는 탄소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흡수력이 뛰어나다. 면적도 그린카본 면적의 0.1%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계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후변화 위기와 미래 식량난을 해결할 해법이 해조류에 있다고 보고 완도를 방문한 바 있다. 해조류의 우수성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완도군과 협력기로 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완도를 찾았다. 이런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미 '아마존'은 북해 네덜란드 연안의 풍력발전 단지 내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조류 양식장 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모든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잘피림(잘피숲), 염습지(갯벌), 맹그로브

(열대 해변, 습지의 나무 등 염생식물) 등 3종만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잘피는 물고기 서식 환경 제공과 오염물질 흡수, 생태계 정화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주요 탄소 흡수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기 어려워졌다. 많은 곳에서 잘피 서식지 개선타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단순히 이식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토양개량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김, 미역 등 우리지역 주력 수산물인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국가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블루카본 관련 산업의 체계적 연구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해조류 수도인 완도에 블루카본 연구센터와 블루카본 거래소 등을 두어야 한다. 해조류도 나무처럼 가꿀 수 있도록 스마트 육상양식 연구 및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키가 여기에 있다. 탄소 중립을 해결하지 못한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양질의 좋은 기업 유치로 연계하면 가능한 일이다. 투자한 것 없이 돈을 버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 그 수입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이 있다. 여기까지 온는데 수백년 동안 생사를 오가면서 대대로 이어온 완도 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호기를 맞아 해조류 산업이 완도와 전남의 글로벌 가치를 높이면서 건강을 지키고 지방도 살리고 지구도 치유하는 해결사가 되길 기대한다.

無等鼓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0분 편집국으로 들어섰다. 밤 10시 23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너무나 뜬금없는 계엄선포에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우려했다. TV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분회의장 진입 시도, 국회 정문의 아수라장 등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마감을 위해 읽어 내리긴 긴급담화는 '패악질', '망국의 나락', '망국의 원흉', '체제 전복', '반국가 세력', '반국가행위' 등 시대착오적이며 비난 가득한 낱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해 각계 반군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감시간을 4일 밤 12시 30분으로 설정했다.

비상계엄 호의

45년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50분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돌이켜보면 취임 이후 그의 권력은 국가,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 주변 소수를 위해 남용되었다. 이날 한밤의 '해프닝'이 사실상의 진위쿠데타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격적이며, 회복할 수 없다. 그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반성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윤석열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18명은 국회로 갔으나, 나머지는 원내대표가 당사에 묶여두었다.

새벽 1시1분 190명 재적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즉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극도로 팽팽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느 순간 계엄군이 자취를 감추는 등 상황은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가결 소식을 접어넣고 서둘러 제작을 끝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7년 9개월만의 광주일보 호의다.

45년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50분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돌이켜보면 취임 이후 그의 권력은 국가,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 주변 소수를 위해 남용되었다. 이날 한밤의 '해프닝'이 사실상의 진위쿠데타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격적이며, 회복할 수 없다. 그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반성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